

연구 02-28

경제위기 이후 임금 불안정에 대한 연구

박성준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위기 이후 임금 불안정에 대한 연구

1판1쇄 인쇄/2003년 2월 3일

1판1쇄 발행/2003년 2월 6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좌승희

편집인 · 좌승희

등록번호 · 제13-53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3771-0001 (직통)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n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3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BN 89-8031-269-5

값 3,000원

발간사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중산층의 붕괴에 기인한다는 일련의 보도와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막연히 중산층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느 계층인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과거 연간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 불평등에 관한 연구들은 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는 하겠으나 경제위기 이후 매우 단기간에 발생한 소득 불안정에 따른 소득 불평등을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소득을 항시적 소득과 일시적 소득으로 분리한 후 일시적 소득부분의 변동폭이 전체소득의 변동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소득의 불안정을 정의한 후 이를 지표로 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계층이 경제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지를 밝히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경제위기 이후 임금이 가장 불안정한 계층은 직장을 한번이라도 옮긴 경험이 있고 옮겼더라도 비자발적으로 타 산업으로 옮기고 또한 비정규직으로 옮긴 40대 저학력층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단기간의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고착화되어 장기간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는 좀더 시

일을 두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해 주신 본원의 박성준 박사께 감사를 드리고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헌신적으로 도와준 이화여대 석사과정에
있는 성소영씨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내용은 전적으로 필자의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적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혀둔다.

2003년 2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승희

차 례

제1장 서론 / 7

제2장 자료 / 13

제3장 추정방법 / 17

제4장 추정결과 / 21

1. 연령·학력간 임금의 불안정성 / 23
2. 산업간·노조유무간 임금의 불안정성 / 27
3. 직장이동 / 29
4. 고용형태 / 35
5. 회귀분석 / 38

제5장 요약 및 결론 / 43

참고문헌 / 47

부 록 / 50

영문초록 / 51

표 차례

- <표 1> 계층별 항시·일시임금의 분산추이 / 24
- <표 2> 학력·연령별 항시·일시임금의 분산추이 / 25
- <표 3> 학력·연령별 임금의 최고치와 최저치간의 변동폭 / 27
- <표 4> 산업간·노조유무간 임금의 불안정성 / 28
- <표 5> 1회 이상 직장이동 비율 / 31
- <표 6> stayer와 mover간의 임금 불안정 비교 / 33
- <표 7> 산업간·산업내 직장이동에 따른 임금 불안정성 / 35
- <표 8> 고용형태별 임금의 불안정 정도 / 36
- <표 9> stayer와 mover의 비정규직 비중 / 37
- <표 10> 회귀분석 결과 / 41

제1장 서론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일련의 연구들이 있다(유경준(1999), 박성준(2000), 정진호 외(2001), 최희갑(2002)). 이들 연구들은 불평등을 주로 교육수준 및 경력에 대한 소득의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의 증가는 주로 숙련편향적 기술(skill-biased technological) 변화에 따른 노동수요 및 공급의 변화(박성준(2000))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도 1980년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숙련편향적 기술(skill-biased technological) 변화에 따른 노동수요의 변화,¹⁾ 조직상 및 인사상의 관례의 변화(organizational and personnel practice, 세계화)²⁾ 그리고 노조 조직물과 노동시장제도의 변화³⁾ 등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횡단면(cross-sectional) 자료를 사용하여 각 연도에서의 임금격차를 분석하여 왔다.

그러나 이미 알다시피 소득은 항시적(permanent) 부분과 일시적(transitory) 부분으로 구성되며 따라서 소득의 변동은 항시적(permanent) 변동뿐만 아니라 일시적(transitory) 변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Friedman(1957)). 이는 결국 소득 불균등의 원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일시적(transitory) 부분을 간과한 채

1) Davis and Haltiwanger(1991), Bound and Johnson(1992), Kruger(1991), Mincer(1991)

2) Murphy and Welch(1991)

3) Blackburn, Bloom and Freeman(1990), Mitchell(1989)

전체적 변동을 항시적(permanent) 변동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소득의 일시적(transitory) 변동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이 시작되고 있다. Gottschalk and Moffitt(1994)의 연구는 소득의 불평등(overall inequality)을 항시적(permanent) 불평등과 일시적(transitory) 불평등으로 나누는 뒤 소득의 불평등에서 항시적 부분과 일시적(transitory) 부분이 차지하는 크기를 비교하면서 비록 일시적 부분의 크기가 증가하였으나 항시적 부분 또한 커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후 미국에서는 Gottschalk and Moffitt(1994)의 연구를 다른 자료, 다른 방법, 다른 나라 등(Gittleman and Joyce(1996), Cameron and Tracy(1998), Baker and Solon(1999))에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아직 일시적(transitory) 불평등의 원인을 찾는 데에는 별 진척된 바가 없다. 단지 Ann Huff Stevens(2001), Berry Steve, Peter Gottschalk, and Doug Wissoker(1988)는 직장상실(job loss)이 임시(transitory)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고 Rodrik(1997)은 세계화 그리고 자본의 국제이동이 노동수요를 보다 탄력화함으로써 소득의 불안정성을 높인다고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동기는 경제위기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근로소득(earning) 불평등도가 다소 나빠지고는 있었으나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악화된 원인이 과연 단지 숙련편향적 기술(skill-biased technological) 변화에 따른 노동수요 및 공급의 변화에 기인한 항

시적(permanent) 부분의 격차로만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에서 출발하였다. 물론 기존의 연구에서 밝힌 대로 숙련편향적 기술(skill-biased technological) 변화에 따른 노동수요 및 공급의 변화 또는 좀더 확대하여 세계경쟁의 심화 등으로 인해 근로소득의 불평등은 이미 경제위기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경제위기 이후 짧은 시간 내에 급속히 나빠지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오히려 경제위기 이후 근로소득 불평등도가 심화된 것은 근로소득의 일시적(transitory) 부분의 변화⁴⁾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따라서 이러한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의 항시적 부분과 일시적 부분의 변화를 경제위기 전·후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하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한계로 추후 과제로 미루기로 하였다. 대신 경제위기 이후 어느 계층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해졌는지를 임금의 일시적 부분의 상대적 크기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언론 및 노동계 등에서 경제위기 이후 중산층이 무너짐으로써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많은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계층이 무너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실증이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위기 이후 과연 중산층이 붕괴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계층의 임금⁵⁾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해졌기

4) 물론 향후 장기 시계열자료가 구축된다면 경제위기 이후 과도기 동안의 일시적으로 관측되는 변동은 실제로는 항구적 변동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도 이 기간은 장기 추세에서 비껴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기간이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때문인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될 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제3장에서는 추정방법을 그리고 제4장에서는 추정결과를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미국의 경험과 비교하면서 논한 뒤 결론을 마지막 장으로 할애한다.

5) 이하에서는 근로소득`earning`과 임금`wage`을 동의어로 사용하였다.

제2장 자 료

본 연구의 목적인 각 개인의 매년 소득의 변동을 살피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추적되는 panel 자료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경제위기 이후 구축하기 시작한 노동연구원의 panel 자료인 KLIPS 4년치 자료를 이용한다. 물론 이 자료는 연혁이 짧다는 제한이 있지만 그나마 국내의 유일한 panel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활용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매년 임금이 포착되는 20세에서 60세의 경제활동을 하는 남자들을 기본자료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KLIPS의 개인용 자료를 토대로 지난 조사 당시 임금 근로자로 현재도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 및 새로운 일자리의 임금 근로자로 현재도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로 구성된 자료이다. 따라서 4년간 단 한번이라도 임금 근로자가 아닌 자는 제외되었다. 임금과 관련하여 KLIP 자료는 월평균 임금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이를 연간 임금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1998년도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 중 그전 직장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전 직장의 1998년도 받은 임금과 현 직장의 임금을 합산한 후⁶⁾ 이를 소비자물가를 고려한 연간 실질임금을 사용하였다. 즉 예로 1998년 5월에 전 직장을 그만두고 그 후 현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연간 임금은 ‘5개월×전 직장 월평균 임금+(12월-현 직장 취업한 달)×현 직장의 월평균 임금’으로 하였고, 1998년 처음 새 직장을 갖는 사람은 대부분 연초 3

6) 물론 현 직장의 취업연도가 1998년 이전인 자는 1998년도의 월평균 임금×12개월이 그 사람의 연평균 임금이 된다.

개월 내에 입사한 사람이어서 이들의 임금만을 고려하였다. 다시 말해 4월 이후에 입사한 사람은 제외하였는데 이는 각급 학교의 졸업일정과 맞물리고 또한 4월 이후 받은 임금을 그 사람의 연간 임금으로 볼 경우 추후 소득변동의 폭이 과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1998년도에 조사된 사람 중 1999년, 2000년 그리고 2001년에 매년 추적되는 사람은 994명⁷⁾으로 이들이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된다.

7) 실제로는 1108명이나 본 연구에서는 학력별 차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전문대졸을 제외하였다.

제3장 추정방법

소득의 변동을 항시적 부분과 일시적 부분으로 나누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Gottschalk and Moffitt(1994)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한 개인의 전체소득을

$$Y_{it} = \mu_i + v_{it}$$

으로 분리한다.

여기서 Y_{it} 는 한 개인 i 의 t 연도의 전체소득을 의미하고 μ_i 는 시간에 무관한 소득의 항시적 부분이고 v_{it} 는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일시적 부분이다.

그러면 그 개인의 전체소득 Y_{it} 의 변동인 σ_{it}^2 는 항시적 부분의 변동 σ_{μ}^2 와 일시적 부분의 변동 σ_v^2 의 합인

$$\sigma_{it}^2 = \sigma_{\mu}^2 + \sigma_v^2$$

가 된다.⁸⁾

본 연구에서는 σ_{μ}^2 와 σ_v^2 를 구한⁹⁾ 후 σ_v^2 가 전체변동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sigma_v^2 / \sigma_{it}^2$ 를 구하여 경제위기 이후 어느 계층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불안정화되었는지를 살펴본다.

8) $Var(y_{it}) = Var(\mu_i + v_{it}) = V(\mu_i) + Var(v_{it}) + 2Cov(\mu_i, v_{it})$ 에서

$2Cov(\mu_i, v_{it}) = 0$ 이라고 가정한다. 실제로 항시적 소득과 일시적 소득간에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

9) σ_{μ}^2 와 σ_v^2 의 추정방법은 부록에 수록하였음.

제4장 추정결과

본장에서는 앞장에서 논의한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경제위기 이후 구체적으로 어느 계층의 임금이 가장 불안정화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연령·학력간 임금의 불안정성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위기 이후 전체적인 임금의 변동은 약 0.58로 그 중 항시적 임금변동분은 약 0.40이고 일시적 변동분은 약 0.18로 일시적 변동분이 전체변동의 약 30%나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임금의 변동을 항시적 변동으로 간주하고 임금의 불평등도의 추이 및 그 원인을 분석하여 왔던 기존의 연구는 상당히 상향 편향bias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를 보다 세분하여 연령별·학력별로 살펴보자. 먼저 연령별로는 <표 1>에서 보다시피 40대까지는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항시적 부분과 일시적 부분의 변동이 증가하다가 50대에 들어서 항시적 부분은 증가하는 반면 일시적 부분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Gottschalk and Moffitt(1994)의 1979-87년의 연구에서 연령이 올라갈수록¹⁰⁾ 비록 항시적 부분은 증가하나 일시적 부분은 떨어지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전체변동에서 일시적 변동이 차지하는 비중별로 살펴보면 Gottschalk and Moffitt(1994)의 연구¹¹⁾에서도 발견되듯이

10) 이들 연구에서는 50대가 누락되어 있다. 그러나 40대까지의 일시적 부분을 살펴보면 20대는 0.182, 30대는 0.125 그리고 40대는 0.118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일시적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지고 있어 연령이 올라갈수록 소득이 매우 안정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표 1> 계층별 항시·일시임금의 분산추이

	σ_{μ}^2	σ_{ν}^2	$\sigma_{\nu}^2 / \sigma_{\mu}^2$
전체	0.404	0.175	30.3
연령			
20-29	0.161	0.160	49.9
30-39	0.304	0.173	36.2
40-49	0.482	0.188	28.1
50-59	0.792	0.177	18.3
학력			
고졸 이하	0.253	0.133	34.5
대졸 이상	0.505	0.282	35.8

*1998-2001

다음으로 교육수준에 따른 소득의 안정성을 살펴보면 교육년도가 높을수록 항시적 변동분과 일시적 변동분 모두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경우와 매우 대조적이다. 즉 Gottschalk and

11) Gottschalk and Moffitt(1994)의 연구에서는 일시적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대는 44.7, 30대는 33.4 그리고 40대는 27.7%로 나타나고 있다.

Moffitt(1994)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항시적·일시적 변동이 모두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비교가 되는 부분은 전체변동에서 일시적 변동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미국의 경우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중이 감소하여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이 안정되는 반면 우리의 경우는 학력이 높을수록 일시적 변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높아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경우 저학력층의 대부분이 생산직으로 노조의 임금압력으로 사무관리직의 고학력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의 변동폭이 적기 때문이라고 해석되어진다.

<표 2> 학력·연령별 항시·일시임금의 분산추이

	고졸 이하			대졸 이상		
	σ_{μ}^2	σ_{ν}^2	$\sigma_{\nu}^2 / \sigma_{it}^2$	σ_{μ}^2	σ_{ν}^2	$\sigma_{\nu}^2 / \sigma_{it}^2$
20-29	0.123	0.127	50.9	0.257	0.225	46.7
30-39	0.204	0.122	37.4	0.330	0.270	45.0
40-49	0.275	0.142	34.0	0.339	0.346	50.5
50-60	0.409	0.149	26.7	0.960	0.298	23.7

이와 같이 연령이 올라갈수록 임금이 안정화되는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이 불안정화된다면 이제 연령과 학력을 모두 고려하여 소득 불안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표 2>에서 저학력층은

연령이 높을수록 항시적·일시적 변동이 모두 올라가고 있는 반면 고학력층에서는 40대까지는 항시적·일시적 변동이 증가하다가 50대에서는 비록 항시적 부분은 급증하나 일시적 부분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를 전체변동에서 일시적 변동이 차지하는 비중, 즉 소득의 불안정성으로 살펴보면 저학력층에서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소득이 안정화되는 경향을 띠고 있으나, 고학력에서는 소득 불안정성이 40대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20대, 30대, 50대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표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30~40대로서 이 두 연령층은 고학력이 저학력보다 오히려 소득이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계층의 소득 변동폭을 알기 위해 각 연령, 학력별로 개개인이 4년간 받은 임금의 최고치와 최저치간의 변동폭의 평균값을 구하여 보았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학년에서는 40대의 임금 변동폭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30대, 50대 그리고 20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학력에서는 40대, 50대, 30대 그리고 20대 순으로 임금의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경제위기 이후 임금의 불안정성이 가장 큰 계층은 40대 연령층으로 학력에서는 고학력자들이라는 점이다. 이는 Gottschalk and Moffitt (1994)의 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소득 불안정성이 저연령·저학력층에 나타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비록 미국은 과거 20년간 유연한 노동시장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

착된 반면 우리의 경우는 경제위기 이후 해고제도의 변화, 임금 제도의 변화 및 비정규직의 급증 등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에 미치는 제반 요인들이 급속히 변화한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 학력·연령별 임금의 최고치와 최저치간의 변동폭

	20-29	30-39	40-49	50-60
고졸 이하	0.640	0.665	0.711	0.661
대졸 이상	0.890	0.976	1.140	1.060

2. 산업간·노조유무간 임금의 불안정성

본절에서는 경제위기 그리고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느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가장 많은 타격을 입었는지, 즉 어느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가장 불안정한지를 살펴보았다. 경제위기 이후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업종은 건설업이었고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도산 및 합병 등으로 제조업이 타격을 입고 그리고 이어 부실채권을 안고 있던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의 도산·폐쇄 및 합병으로 이들 세 업종을 중심으로 대량 해고 및 임금의 삭감 등이 있었다. 그러나 2000년 들어서면서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되었고 또한 기업들의 체질개선, 특히 임금체제의 변화 등 경제위기 이후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들

의 임금에는 커다란 기복이 있어 자연 임금변동의 폭이 매우 컸을 것이다.

<표 4>는 이러한 설명을 확인이라도 하듯이 임금이 가장 불안정한 산업은 금융관련 산업이고 이를 이어 건설업 그리고 제조업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공공부문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편 노조유무별로 살펴보면

<표 4> 산업간·노조유무간 임금의 불안정성

	σ_{μ}^2	σ_b^2	$\sigma_b^2 / \sigma_{it}^2$
전체산업	0.402	0.175	30.3
노조	0.477	0.204	30.0
비노조	0.358	0.156	30.3
제조업	0.277	0.153	35.6
노조	0.330	0.192	36.8
비노조	0.198	0.121	37.9
건설업	0.233	0.149	39.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0.370	0.159	30.0
운수, 창고 및 통신업과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395	0.150	27.6
노조	0.467	0.119	20.3
비노조	0.240	0.156	39.4
금융 및 보험	0.342	0.405	54.2
공공행정	0.503	0.190	27.4

노조가 활발한 제조업과 전기, 가스 등 공공산업에서는 노조의 임금압축(wage compression)으로 노조가 있는 기업이 없는 기업에 비해 임금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공공행정을 제외하고는 타 산업에 비해 고학력의 비중이 큰 금융관련 산업의 소득 불안정이 가장 크다는 것은 이미 앞절에서 본 바와 같이 고학력자의 임금 불안성이 높은 것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산업에 관계없이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근속연수가 긴, 따라서 임금이 높은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고 또는 임금을 대폭적으로 삭감하였고 또한 경기 회복기에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올라 자연 40대 연령층의 임금 기복이 커지지 않았을까 유추해석되어진다.

3. 직장이동

지금까지의 분석은 근로자의 연령 및 학력 등 인구학적인 측면이 임금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만 살펴보았을 뿐이다. 그러나 비록 같은 연령, 같은 학력을 가진 근로자일지라도 그가 어느 산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임금의 변동폭이 달라질 수 있고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경력(history)의 차이로 인해 상호 임금의 변동폭에 차이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미 앞절에서는 종사하는 산업에 따른 임금의 불안정의 차이를 논하였으므로 본절에서는 근로자의 노동시장 경력(history)의 차이가 임금의 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경제위기 이후 기업들은 명예퇴직·해고 및 임금동결·삭감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였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의 근로자들은 실직하거나 또는 직장을 옮기는 등 노동시장의 이동과 고용 불안정성¹²⁾이 심각하게 발생했다. 본절에서는 직장이동(job turnover)이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직장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근로자(stayer)와 직장을 이동한 근로자(mover) 간의 임금 불안정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표본에 따르면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기간에 한번 이상 직장을 옮긴 자는 전체표본의 약 24.5%에 달하고 있으며 이를 연령별로 세분하여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직장이동이 줄어들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이론(job matching theory)에 따르면 젊은 연령층은 자신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일자리를 자주 옮기게 되고 이후 자신에 맞는 일자리와 궁합이 맞으면서 matching 직장이동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한 학력별로 살펴볼 경우 고학력자가 저학력자보다 직장이동이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직장이동이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정확하게는 직장을 옮김으로 인해 임금의 기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피기 위해 직장을 옮긴 경험이 없는 자(stayer)의 임금 불안정과 비교해 보았다. <표 6>에서 보다시피 직장을 한번이라도 옮긴 자(mover)는 옮긴 경험이 없는 자(stayer)에 비해 전체적¹³⁾으로

12) 이에 대한 연구로는 금재호·조준모(2001)의 연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지 임금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직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했다.

나 연령별로나 그리고 학력별로나 임금의 불안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장을 옮긴다는 사실 그 자체가 임금의 불안정(변동)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즉 직장의 이동은 보다 높은 임금을 주는 직장으로 옮길 수도 있고 또는 보다 못한 직장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표 5> 1회 이상 직장이동 비율

	1회 이상 직장이동 비율	비자발적 비율
전체	24.5	30.5
연령		
20-29	32.3	23.5
30-39	25.8	29.4
40-49	23.4	37.2
50-60	10.7	38.9
학력		
고졸 이하	27.6	32.6
대졸 이상	18.0	26.9

13) <표 6>에서 stayer와 mover의 전체적인 임금 불안정 비교에서 stayer와 mover의 일시적 부분의 변동이 같은 값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연령별·학력별로 볼 때 stayer가 mover에 비해 항구적 부분은 큰 반면 일시적 부분은 작으나 단지 40대, 특히 50대의 mover의 일시적 부분이 stayer에 비해 상당히 작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같은 값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사려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표 5>와 <표 6>을 비교하면서 흥미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표 5>에서는 mover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직장을 옮길 확률이 떨어지며 따라서 자연 임금의 변동성도 줄어들 것으로 예견되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대가 30대보다 분명 직장을 옮길 확률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임금지불의 불안정성은 약 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미 언급했듯이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직장을 옮길 확률이 줄게 되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직장을 옮긴다는 것은 자발적quit이라기보다는 비자발적layoff인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즉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외부의 조건이 의중임금reservation wage 이상이 되지 않는 한 직장을 쉽게 옮기지 않게 된다(job search 이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고연령층이 자리를 옮기는 경우는 비자발적일 가능성이 높고 비록 타 직장을 구한다 하더라도 현 임금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직장으로 옮겨 자연 임금이 불안정하게 된다. 기실 mover 중에서 비자발적 직장이동의 비율을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대는 약 23.5%, 30대는 29.4% 그리고 40대는 약 37.2%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다른 한편 학력별로 볼 때 mover의 경우 저학력은 직장이동, 특히 비자발적인 직장이동이 많고 따라서 저학력이 고학력에 비해 임금이 불안정적인 데 반해 stayer의 경우는 정반대의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고학력에 비해 (생산직) 저학력 근로자는 노조의 영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이라고 유추해석할 수 있다.

<표 6> stayer와 mover간의 임금 불안정 비교

	σ_{μ}^2	σ_{ν}^2	$\sigma_{\nu}^2 / \sigma_{it}^2$
Stayer	0.417	0.175	29.6
연령			
20-29	0.174	0.139	44.4
30-39	0.295	0.171	36.8
40-49	0.495	0.190	27.7
50-60	0.829	0.201	19.5
학력			
고졸 이하	0.265	0.128	32.6
대졸 이상	0.490	0.280	36.4
Mover	0.269	0.175	39.4
연령			
20-29	0.115	0.196	63.0
30-39	0.283	0.177	38.5
40-49	0.278	0.182	39.5
50-60	0.511	0.094	15.5
학력			
고졸 이하	0.176	0.146	45.4
대졸 이상	0.457	0.291	38.9

또한 비록 같은 mover라 할지라도 기존 기업이 속한 업종의 기업으로 옮기느냐 아니면 전혀 다른 업종의 기업으로 옮기느냐에 따라 임금의 불안정성의 정도는 매우 다를 것이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업종의 기업으로 옮긴 경우(산업내 이동)와 다른 업종의 기업으로 옮길 경우(산업간 이동)의 임금변동의 차이를 보면 산업내 이동이 산업간 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산업내 이동일 경우 industry-specific skill을 활용할 수 있어 기존의 임금과의 격차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반면 산업간 이동의 경우는 기존의 industry-specific skill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임금과의 격차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을 보다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표 7>의 연령별 산업내 이동과 산업간 이동의 임금 불안정 정도의 차이이다. 우선 20대의 경우는 아직 industry-specific skill이 쌓이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자신에 맞는 업종을 찾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간 이동이 산업내 이동보다 임금의 변동을 줄일 수 있다고 하겠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industry-specific skill이 쌓여 자연 산업내 이동이 산업간 이동의 경우보다 임금의 변동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여기서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은 40대의 경우 산업내 이동에 비해 산업간 이동의 임금변동의 차이가 타 연령층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경제위기 이후 임금이 가장 불안정한 층은 타 업종으로 직장을 옮긴 40대 연령층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7> 산업간·산업내 직장이동에 따른 임금 불안정성

		Mover	
		산업내	산업간
전체		33.9	43.2
연령	20-29	69.4	60.9
	30-39	38.1	39.9
	40-49	28.9	46.3
	50-60	11.3	20.2

4. 고용형태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현상 중의 하나는 고용형태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비록 1990년대 초부터 비정규직irregular worker이 서서히 증가는 하였으나 경제위기 이후 정규직은 주는 대신 비정규직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최근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임금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비정규직의 증가는 곧 고용의 불안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임금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게 된다. 실제 <표 8>은 조사기간 중 단 한번이라도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거나 일한 경험이 있었던 임금 근로자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정규직과 이들과의 임금 불안정성 정도를 비교하고 있는데 보다시피 전체적으로나 연령별 또는 교육수준면에서 정규직에 비

해 비정규직의 임금변동 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8> 고용형태별 임금의 불안정 정도

	1회 이상 비정규직 고용자 비율(%)	임금 불안정성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25.4	30.6	47.0
연령	20-29	30.2	48.7
	30-39	22.7	37.5
	40-49	23.1	29.7
	50-59	34.4	17.4
학력	고졸 이하	33.0	32.0
	대졸 이상	12.3	37.9

앞절에서 본 연구는 단지 직장이동이 임금의 안정성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stayer와 mover를 비교하면서 mover의 경우 상당 부분이 비자발적 직장이동으로 자연 기존의 임금을 보전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절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경험이 있는 자의 비중을 mover와 stayer의 경우를 비교해 보았는데 <표 9>에서 보듯이 mover의 경우 정규직으로의 직장이동보다는 비정규직으로의 이동이 절대적으로 많은 반면, stayer의 경우는 비정규직의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표 6>과 같이 stayer에 비해 mover의 임금변동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직장이동이 임금변동 폭은 높인데 경제위기 이후 상당부분이 비자발적이며 또한 옮긴 직장에서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으로보다는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9> stayer와 mover의 비정규직 비중

(단위 : %)

	stayer		mover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859	14.1	40.1	59.9	
연령	20-29	907	9.3	35.2	64.8
	30-39	883	11.7	40.7	59.3
	40-49	842	15.8	47.5	52.5
	50-59	747	25.3	33.3	66.7
학력	고졸 이하	794	20.6	34.6	65.4
	대졸 이상	955	4.5	52.7	47.3

이상의 분석에서 경제위기 이후 임금이 가장 불안정한 계층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40대 고학력층인 듯하나 이를 보다 세분하여 살펴보면 직장을 한번이라도 옮긴 경험이 있고 옮기더라도 비자발적으로 타 산업으로 옮기고 또한 옮겼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옮긴 40대 저학력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고학력층이, 그리고 mover·stayer로 볼 경우에는 저학력층의 소득이 불안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mover의 경우 저학력층이 고학력층에 비해 비자발적 직장이동이 크고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의 표본에서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stayer의 경우는 저학력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노조의 압력에 기인한 것으로 자연 전체적으로 고학력층의 임금이 가장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무튼 경제위기 이후 근로소득이 가장 불안정한 계층은 40대 저학력층이라고 볼 수 있다.

5. 회귀분석

지금까지 본 연구는 임금의 불안정성을 연령별·학력별·산업별·노조유무별 그리고 끝으로 직장이동 여부별로 살펴보았다. 이제 본절에서는 이들이 임금의 불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의 표본은 panel 자료이기는 하나 기간이 4년에 불과하여 개인별로 임금의 항구적 변동을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전체변동에서 일시적 변동이 차지하는 비중(σ_v^2 / σ_u^2)을 나타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임금 불안정을 살펴볼 수가 없다. 대신 본절에서는 단지 일시적 변동(σ_u^2)이 이들 변수에 어

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 불안정성 대신 임금의 일시적 변동만을 살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경제위기 이후 임금소득의 급격한 변화를 본 연구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일시적 변동¹⁴⁾에 기인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표 10>은 $\sigma_{w,t}^2$ 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1)은 인적숙성human capital인 연령 및 학력이 $\sigma_{w,t}^2$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연령은 50~60세를 0으로 한 더미변수를 사용하였고 학력은 대졸 이상을 0으로 한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비록 연령은 유의하지는 않지만 <표 1>의 결과와 일치하였고 학력은 매우 유의하게 일치하고 있다. 즉 $\sigma_{w,t}^2$ 는 40대까지는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커지고 있으며 저학력이 고학력보다 $\sigma_{w,t}^2$ 가 작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2)는 직장이동에 따른 $\sigma_{w,t}^2$ 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여기에서 산업변화는 직장이동시 산업의 변화여부를 나타낸 것으로 변하지 않음을 0으로 한 더미이고 정규직 유무는 정규직을 0으로 한 더미이다. 비록 학력을 제외하고는 유의하지 않지만 <표 6>의 mover의 $\sigma_{w,t}^2$ 에 대한 학력·연령의 크기 변화와 일치하고 있다. 비록 <표 7> 및 <표 8>에서는

14) 정확한 의미에서의 일시적 변동으로 소득 불안정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임금의 항구적 변동($\sigma_{w,t}^2$)을 통제해야만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sigma_{w,t}^2$ 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 변동의 회귀분석을 소득 불안정성의 회귀분석으로 대신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σ_{wi}^2 의 값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2)의 결과로 산업간 이동이 산업내 이동보다 그리고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σ_{wi}^2 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유추해석할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stayer의 경우에도 mover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 6>의 stayer의 σ_{wi}^2 에 대한 학력·연령의 크기 변화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비록 mover의 경우에 비해 그 영향의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σ_{wi}^2 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유추해석할 수 있겠다. 끝으로 (3)은 직장이동 여부 및 노조여부도 포함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흥미있는 사실은 연령 및 학력의 경우 비록 크기는 다르나 그 미치는 방향은 (1)의 결과와 같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산업간 이동 및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σ_{wi}^2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2)의 mover의 경우와 같다. 단지 (3)에서 직장이동 여부를 포함 시킴으로써 산업간 이동 및 비정규직이 σ_{wi}^2 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을 뿐이다.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mover가 stayer보다 σ_{wi}^2 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은 <표 6>과 일치하고 있다. 노조유무의 경우 노조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σ_{wi}^2 의 변화를 줄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σ_{wi}^2 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앞에서 분석한 임금 불안정성

의 결과와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으나 단지 학력의 경우는 특히 mover의 경우 달리 나오고 있다. 이는 <표 6>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저학력보다 고학력의 σ_{vi}^2 의 값이 크지만 또한 σ_{μ}^2 의 값

<표 10>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1)	노동이동		전 체
		Mover	Stayer	
연령 20-29	-0.0388	0.0836	-0.0878	-0.0450
	(-1.16)	(1.24)	(-2.22)	(-1.33)
	30-39	-0.0283	0.0561	-0.0521
	(-0.99)	(0.90)	(-1.61)	(-1.09)
40-49	0.0049	0.0949	-0.0184	0.0033
	(0.17)	(1.43)	(-0.55)	(0.11)
학력	-0.1540	-0.1435	-0.1575	-0.1589
	(-8.08)	(-3.13)	(-7.22)	(-8.09)
정규직 유무		0.0092	0.0037	0.0145
		(0.24)	(0.13)	(0.62)
산업변화		0.0273		0.0035
		(0.67)		(0.19)
직장이동				0.0204
				(0.88)
조합 유무				-0.0323
				(-1.42)
상수	0.3022	0.1994	0.3228	0.3236
	(10.30)	(2.57)	(9.85)	(9.12)
R ²	0.0622	0.0552	0.0725	0.0653
N	994	245	749	994

주 : () 안은 t-값임.

이 상대적으로 더 커 임금 불안정성은 저학력이 오히려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귀분석의 결과도 경제위기 이후 임금이 가장 불안정한 계층은 직장을 한번이라도 옮긴 경험이 있고 옮기더라도 비자발적으로 타 산업으로 옮기고 또한 옮겼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옮긴 40대 저학력층(?)임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제5장 요약 및 결론

기존의 연구 대다수는 횡단면cross sectional 자료를 이용하여 불평등의 요인을 숙련 편향적 기술의 변화로 교육 및 경력에 대한 소득의 증가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장기적으로는 타당할지 몰라도 경제위기 이후 급속히 소득 불평등이 악화된 요인을 설명하기에는 미진한 감이 있다. 오히려 경제위기 이후 소득의 불평등은 소득의 일시적 변동transitory fluctuation의 폭이 커진 데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미 알다시피 소득은 항시적 부분과 일시적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일시적 부분의 변동이 커지면 자연 소득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소득의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경제위기 이후 어느 계층의 소득이 가장 불안정하였는가에 있다. 즉 임금의 항시적 변동과 일시적 변동을 구한 후 일시적 변동이 전체 변동—일시적 변동과 항시적 변동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교육수준별, 연령별, 산업별, 노조 유무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또한 경제위기 이후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의 하나인 노동이동 여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비록 자료의 한계가 있지만 이들 변수가 임금의 일시적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회귀분석도 하였다. 그 결과 경제위기 이후 임금이 가장 불안정한 계층은 직장을 한번이라도 옮긴 경험이 있고 옮겼더라도 비자발적으로 타 산업으로 옮기고 또한 비정규직으로 옮긴 40대 저학력층이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결국 본 연구는 이미 여러 연구 및 언론에서 경제위기 이후 중산층이 무너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어

는 계층인지를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단지 임금 근로자, 그 중에서도 매년 임금이 포착되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경제위기 이후 증가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 근로자층을 고려하지 못하여 단정적으로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리기에는 매우 조심스럽다고 하겠다.

끝으로 본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금의 변동 fluctuation을 보기 위해 각 개인의 매년 소득변동을 추적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panel 자료인 노동연구원의 KLIPS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자료의 연혁이 매우 짧아 개인별 항시적 임금변동과 일시적 임금변동을 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향후 보다 KLIPS 자료의 연혁이 쌓임에 따라 매년 임금의 항시적 부분과 일시적 부분의 변동추이를 구할 수 있다면 소득 불평등의 연구는 보다 한 차원 높일 수 있겠다고 사려된다.

참고문헌

- 강순희·정윤현, 「과거 실업경험이 현재 실업에 영향을 미치는가? : 상태의존성의 검증」, 2001년 경제학 공동학술세미나, 한국노동경제학회 발표논문집, 2001, pp.61-83.
- 김재호·조준모, 「외환위기 전후의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제24권 1, 2001, pp.35-66.
- 류재우·김재홍, 「근래의 상용직 비중 변화에 대한 동태적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24권 1, 2001, pp.253-83.
- 박성준, 「금융위기 이후 소득 불균등에 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제23권 2, 2000, pp.61-80.
- 유경준, 「임금소득 불평등도의 분해와 원인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1999.
- 정진호, 황덕순, 이병희, 최강식,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체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 최희갑, 「외환위기와 소득분배의 양극화」, 『국제경제연구』 제8권 2, 2002, pp.1-19.
- Ann Huff Stevens, “Changes in earnings instability and Job los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55, No.1, 2001, pp.60-78.

- Baker, Michael, "Growth Rate Heterogeneity and the Covariance Structure of Life Cycle Earning," *Journal of Labor Economic*, Vol.15, No.2(April), 1997, pp.338-375.
- _____, and Gary Solon, "Earnings Dynamics and Inequality among Canadian Men, 1976-92 : Evidence from Longitudinal Income Tax Records," *NBER Working Paper* No.7370, 1999.
- Berry Steve, Peter Gottschal, and Doug Wissoker, "An error components Model of the Impact of Plant Closing on Earning,"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70(November), 1988, pp.701-707.
- Blackburn, M., D. Bloom, and R. Freeman, The declining position of less skilled American males, *A Future of Lousy Jobs?*, ed. By G. Burtles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90, pp.31-67.
- Bound, John and George Johnson, Changes in the structure of wages in the 1980s : an evaluation of alternative explan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82, 1992, pp.371-392.
- Davis, S., and J. Haltiwanger, Wage dispersion between and within U.S. manufacturing plants, 1962-1986,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 1991, pp.115-180.

- Gittleman, Maury and Mary Joyce, “Earnings Mobility and Long-run Inequality : An analysis Using Matched CPS Data,” *Industrial Relations*, Vol.35(April), 1996, pp.180-96.
- Gottschalk and Moffitt, “The Growth of Earnings Instability in the U.S. Labor market,” *Brooking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2, 1994, pp.217-272.
- Kruger, A., *How computers have changed the wage structure : Evidence from micro-data, 1984-1989*, mimeo, Princeton University, 1991.
- Friedman, Milton, “A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 Mincer, J., Human capital, technology, and the wage structure : what do time series show?, *NBER Working Paper* No.3581, 1991.
- Mitchell, D., Wage pressures and labor shortages : The 1960s and 1980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 1989, pp.191-232.
- Murphy, K., and F. Welch, The role of international trade in wage differentials, in *Workers and Their Wages*, ed. By M. Koster. Washington, D.C. : The AEI Press, 1991, pp.39-69.
- Rodrik, Dani, “Has international integration gone too far?,” Institute for International, 1997.

부 록

· 일시적 부분의 변동(σ_v^2)

$$= \frac{1}{N} \sum_{i=1}^N \frac{1}{(T_i-1)} \sum_{t=1}^{T_i} (y_{it} - y_i)^2,$$

· 항시적 부분의 변동(σ_μ^2)

$$= \frac{1}{N-1} \sum_{i=1}^N (y_i - y_{..})^2 - \left(\frac{\sigma_v^2}{\bar{T}}\right).$$

여기서 y_{it} ; 개인 i의 t연도의 전체 소득,

y_i ; 한 개인 i의 y_{it} 의 값을 T_i 로 평균한 것,

$y_{..}$; y_{it} 를 i 전체와 전기간 동안 평균한 것이다.

또 개인(i=1, ..., N)의 전체가 N이고, \bar{T} 는 T_i 의 평균이다.

Abstract

Wage Instability in the Korean Labor Market after the IMF Economic Crisis

by Sung-Joon Park

The rapidly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in the Korean labor market after the economic crisis has been shown in the series of the studies. And a debate has now ensued concerning the cause of this phenomenon; whether this is the result of general shifts in supply or demand caused by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These literatures are based on the annual cross-sectional data, so that they can explain the long-term (permanent) changes in the wage. However, they can not explain the rapid change in the wage which is arisen in the short periods, that is, within 4 years in the labor market after the crisis which can caused a part of the long-term trends in the income inequality. This study focus on the instability in the wage in order to explain this

phenomenon; the rapidly change in the wage which is arisen in the short period. However, this study can not measure how much the wages are instabilized after the crisis becaues of the absense of the panel data before the crisis. Instead, the study focus on whose wage are the most instabilized after the cri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 The involuntary job changed in the different industry from the former, the low educated, 40-50 years old men in the irregular job status.